

Annotated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88-1989

저술소개, 1988 - 1989년

편집자주: 본 호에 실린 저술소개는 1988년 7월에서 1989년 6월 사이에 발간된 전국 각 대학교 및 대학, 대학교 부설 연구소, 기타 사회과학 학회 및 민간 연구소의 논문집 중에서 한국의 인구 및 발전 문제에 관련되는 논문만을 발췌 수록한 것임.

Editor's note: This bibliography lists articles on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which appeared during July 1988 through June 1989 in social science journals published by various universities,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1. 인구성장과 인구정책

2027. 박경애, “성별 사망력 차이 : 한국의 지역적 격차”(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7, pp.130-147.

Park Kyung-Ae, “Sex Differential Mortality : Geographic Variations in Korea”(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7, pp.130-147.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tent and nature of geographic variations of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from all causes. Additional attempts have been made on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mortality.

2028. 백귀순, 방숙, “한국농촌에서 출산력조절과 여성의 역할관계에 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순천향대학 논문집 제11권 제3호, 순천향대학, 1988. 9, pp.355-374.

Back Kwi-Soon & Bang Sook, “An Anthropological Study on the Role of Women Before and After Family Planning Practice in Rural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Vol.11 No.3, Soonchunhyang University, Chonnam, Korea, 1988. 9, pp.355-374.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된 후 가족계획 수용률은 점차 증대되어 왔으며 이것은 출산율의 감소에도 기여를 하였다. 그동안 가족계획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높은 수용률을 입증해주는 것 이었기에 가족계획수용의 사회문화적 의미, 특히 출산담당자인 여성의 역할이란 맥락에서 검토된 것은 부족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여성이 가족계획을 수용하기 전 단계와 가족계획을 수용한 후 단계로 나누어 가족계획사업일시, 가족구조의 변화, 소자녀관의 성립,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 역할기대의 변화 등을 검토해보고 있다.

2029. 오영희, “부부간의 자녀수에 대한 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7, pp. 58-72

Oh Young-Hie, “Impact Analysis of Husband-Wife Conversation about Number of Childre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7, pp.58-72.

부부간의 자녀수에 대한 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부부간의 자녀수에 대한 대화경험률은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지역이 市部일수록, 그리고 혼전취

업경험이 있는 부인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 혼전취업상태, 부부간 대화경험, 초혼연령, 아들의 필요성 정도, 피임실천상태, 주거지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현존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부부간의 대화경험이 현존자녀수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첫 출산까지의 대화경험이 출산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반해, 둘째 출산 이후의 대화는 별다른 출산력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거하여 신혼초에 부부간 자녀수 결정에 대한 대화경험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 小子女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2030. 임종권,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2, pp.57-95.

Lim Jong-Kwon, “A Review on Induced Abortion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12, pp.57-95.

1985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출산조절을 위해서 가급적 사후 임신제거 수단인 인공임신중절보다는 성공적 피임수용을 통해 사전출산조절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31. 鄭京姬, 韓聖鉉, 방숙,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출산조절행태 및 출산조절행위의 결정요인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8. 12, pp.33-53.

Chung Kyung-Hee, Han Seung-Hyun, Bang Sook, “A Study on the Status of Fertility Regulation Behavior and Its Determinants in Rural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 12, pp.33-53.

우리나라 농촌 부인의 출산조절 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출산조절 행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두 가지 출산조절 행위인 가족계획과 인공임신중절의 실태와 관계를 파악하고, 둘째, 출산조절 행위에 영향을 준 요인을

각각 밝혀, 세째, 출산조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32. 조애조, 공세진, “부인의 취업과 출산력과의 관련성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7, pp.34-57

Cho Ae-Jo & Kong Sae-K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7, pp.34-57.

부인의 취업이 보다 보편화될 경우 출산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여성인력활용의 측면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1986년에 실시한 「전국규모의 가족생활주기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취업은 그 자체만으로 결혼 및 출산력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생애주기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혼전취업은 혼기를 늦추게 하는데 영향을 주며, 출산기에서의 취업은 출산간 간격을 늘리면서 小子女를 갖는 경향을 뚜렷이 하고, 또 취업형태에서도 가정과 독립된 경우는 양립된 경우보다 결혼 및 출산력에 주는 영향이 크며, 직종에서도 전문, 사무직일수록 늦게 결혼하거나 小子女를 갖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33. 池河龍, 朴宰用, “종합병원 출산아의 性比에 관련된 요인”(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8. 12, pp.67-76.

Jhi Ha-Ryong & Park Jae-Yong, “Factors Affecting the Sex Ratio at Births in Hospitals of Taegu C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 12, pp.67-76.

출생아 성비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5개 종합병원에서 1962년부터 1986년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의 성비를 연도별로 분석하고, 이 가운데 1개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1984년부터 1987년 까지의 기간 중 매년 2월과 3월에 출생한 1,316명을 대상으로 醫務기록을 조사하였다.

2034. 한성현, 정경희, 방숙,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가족보건 서비스 이용상태 및 가족보건 서비스 이용

요인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순천향대학 논문집 제11권 제3호, 순천향대학, 1988. 9, pp.253-304.

Han Sung-Hyun, Chung Kyung-Hee & Bang Sook,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atus and Its Determinants of Family Planning and Maternal-Infant Care Service in Rural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Vol.11 No.3, Soonchunhyang University, Choongnam, Korea, 1988. 9, pp.253-304.

우리나라 농촌부인들의 모자보건사업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보건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소외집단, 위험집단까지 모자보건서비스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은, ① 대상집단을 위험요인별로 분류하여 가족계획, 산전, 분만, 산후, 영유아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② 제반 가족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③ 한정된 자원으로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35. 한성현, 채영문, 정영철, 이정자, 김영희, 안상은, 방숙, "모자보건사업의 관리정보 체계개발에 관한 연구: 면보건지소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순천향대학 논문집 제11권 제3호, 순천향대학, 1988. 9, pp.413-490.

Han Seung-Hyun, Chae Young-Moon, Chung Young-Chul, Lee Jung-Ja, Kim Young-Hee, Ahn Sang-Eun & Bang Soo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 : Focusing on the Local Health Service Center"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Vol.11 No.3, Soonchunhyang University, Choongnam, Korea, 1988. 9, pp.413-490.

면 보건지소 단위의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리정보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관리정보체계는 지역주민의 보건관리기능 향상을 포함적, 종합적으로 꾸밀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부문과의 정보교환, 나아가서 보건소 정보체계와도 연계되어 업무의 효율화와 보사행정,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으로 보건사업에 있어 기획 또는 평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의 우선순위 및 위험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있어 효율적인 가정방문계획표를 제공하고, 추후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결정하고, 지역별 사업 평가 자료를 제공하며, 각종 통계정보를 도출하여

보고서식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인구이동과 도시화

2036. 공세권, 김은주,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7, pp.3-33

Kong Sae-Kwon & Kim Eun-Joo, "Analysis of Areal Features in Population Structure"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7, pp.3-33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자료를 기초로 지역간 인구구조의 차이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간 인구구조의 차이는 사회변동과정에서 유래하는 일반적인 현상의 하나이지만 그 차이가 클 때에는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국가의 균형개발이나 발전계획에 주요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37. 공세권, 조애주, 김은주, "한국인구전환의 구조적 특성"(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2, pp.3-56.

Kong Sae-Kwon, Cho Ae-Joo & Kim Eun-Joo, "A Study 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opulation Transition"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12, pp.3-56.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인구변동이 빨랐던 한국에서 그 빠른 속도의 인구변동이 앞으로 이어질 미래 사회에서의 인구구조나 분포, 또는 속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까지의 인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세기에 일어난 한국인구의 급속한 전환의 특성을 개관하고,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부언하고 있다.

2038. 李種翊,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지역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8. 12, pp.135-160.

Yee Chong-Ick, "A Study on the Supply Plan of the Rent House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20 No.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8. 12, pp.135-160.

주택정책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홍콩, 싱가폴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임대주택의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현재 한국에 있어서 공공부문으로 건설되고 있는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공공 부문에서의 임대주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의 주택건설 현황 및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유형에 대해서 기술하고, 다음으로 외국의 사례로서 하나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홍콩, 싱가폴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살펴본 후, 그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임대주택의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2039. 이진환, “인구밀도의 변화로 본 도시내부의 성장과 공간 패턴 : 서울의 예”(영문 및 국문요약), 지리학 제38집, 대한 지리학회, 1988. 12, pp. 61-74.

Lee Jin-Hwan, “Intra-Urban Growth and Spatial Patterns in Variation of Population Density (The Case of Seoul)”(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Geography* Vol.38,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Korea, 1988. 12, pp.61-74.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Seoul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ree population density gradient models. Although Seoul is located in a non-Western countr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s pattern of population density falls into the category of Western cities. That is, the central density of the city increases first and decreases later, and the density gradient drops. Population distribution in the city is affected by socioeconomic situations, residents' perception, and the government development polic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a primary determinant of population distribution. The subway system, cheap and faster transportation facilities, could be a factor in making the population density gradient smaller. The graphs and the regression equations show the changes in central density as well as suburban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no model can exactly illustrate the actual densities of the city, and that one model cannot

represent all of these phenomena because every urban center has its own unique urban characteristics.

2040. 鄭鳳輝,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범죄에 관한 연구”(국문), 대전대학 논문집 제7권 제1호, 대전대학, 1988.8, pp.79-150.

Chung Bong-Hee, “A Study on Crime Urbanization in Korea”(in Korean), *Theses of Daejon College* Vol.7 No.1, Daejon College, Daejon, Korea, 1988. 8, pp.79-150.

한국은 경제개발과 국토건설의 지속적 전개로 엄청난 도시화를 이루하였다. 이러한 도시화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수많은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범죄의 양적 격증과 집단화, 잔혹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의 도시화과정과 그 특징,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도시범죄 현상을 질과 양의 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한다.

2041. 河宗根, “부산 대도시권의 위성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국문), 창원대학 논문집 제10권 제2호, 창원대학, 1988. 12, pp.175-198.

Ha Chong-Ge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Cities of Busa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is Collection of Changwon College* Vol.10 No.2, Changwon College, Changwon, Korea, 1988. 12, pp.175-198.

오늘날을 大都市化時代로 규정하고, 이 시대의 중심도시문제는 大都市圈行政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부산 대도시권의 위성도시개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우선 대도시권의 범위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린 후, 그에 따라 부산 대도시권을 설정하고,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의 대도시권 개발방향을 고찰하여, 그에 근거한 부산 대도시권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부산 대도시권의 위성도시개발이 가지는 의의, 그 구체적 내용, 개발여건등을 살펴서, 위성도시개발을 위한 인구 및 기능재배치와 토지이용, 광역적 교통체계 확립등에 대해 제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고찰하여 부산시의 행정구역 확장계획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다.

3. 가족

2042. 김용석, 이승욱, “現存자녀수와 理想자녀수와의

관련성"(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2, pp.113-128.

Kim Eung-Suk & Lee Seung-Wook,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12, pp.113-128.

現存자녀수와 理想자녀수의 분포를 살펴보고 결혼생활이 진행되는 동안 이 두 변수들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1985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2043. 문숙재, 홍성희, "생활 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제3호, 대한가정학회, 1989. 9, pp.153-169.

Moon Sook Jae & Hong Sung Hee, "A Study on Household Work Socialization depending on Life Styl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6 No.3,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9, pp.153-169.

구체적인 가정관리활동인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구체적인 실태는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인 주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등 다양한 변수들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한 복합적인 개념인 생활양식 개념을 도입하여 서울 거주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주부의 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생활양식유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가사노동 사회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가정의 관리 기능 및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2044. 서문희, 홍문식,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특성"(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2, pp.96-112.

Seo Moon-Hee & Hong Moon-Sik, "A Study on Family Patterns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Parent and Child"(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12, pp.96-112.

1988년 9월 서울시내의 한 국민학교 5학년 1개

반과 6학년 2개 반의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가족형태, 가족크기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자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형태, 가족크기, 형제자매들과의 터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나아가서 가족의 정신적 안녕이라는 시각에서 출산조절이 갖는 의미를 음미하고 있다.

2045. 玉亮鍊, "도시주민의 가족가치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7권 제1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8. 6, pp.129-164.

Ock Yang-Lyun, "The Family Values of Urban Resid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Modernity Values of Pusan Citizen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7 No.1, College of Social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pp. 129-164.

오늘날 한국 가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에서, 도시인의 가족가치관을 자녀교육관, 효도관, 가족제도와 근대화관 및 성윤리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부산시민의 가족가치관이 인구학적, 사회 및 경제적 변인들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사회변화 등을 통한 도시 주민의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어떠한가, 세째, 한국 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의 잔존이 가족의 근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46. 유은희, 박성연, "모자간의 애착 및 母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국문 및 영문요약),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제2호, 대한가정학회, 1989. 6, pp.149-162.

Yoo Eun Hee & Park Seoung Yun,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Married Son and Mother's Marital Relationship to Son's Marital Satisfaction: A Path Model"(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7 No.2,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6, pp.149-162.

부부중심적인 서구가족과는 다른 한국가족에서의 결혼만족도 증진과 고부갈등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아래, 부모 결혼관계와 모자간의 애착관계는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가족체계론과 애착이론, 결혼만족도의 선행이론들을 근거로 가설적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의 결과 이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모자간의 애착 관계가 영향을 주고 부모의 결혼관계는 모자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체계론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2047. 尹炳俊, “한국인의 평균 有配偶餘命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8. 12, pp.22-32.

Yoon Byoung-Jun, “A Study on the Korean Average Marital Life Expectanc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 12, pp.22-32.

1970년, 1980년, 1985년의 3개년도 簡易結婚生命表를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有配偶關係의 변화를 연도별, 연령별로 살펴봄으로써 결혼양상의 변화를 수리적인 방법으로 비교 분석한다.

2048. 李尙憲, “한국에 있어서의 出生順位의 변화 : 1975~1984”(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2, pp. 201-211.

Lee Sang-Hun, “Trends in Birth Order in Korea : 1975~1984”(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12, pp.201-211.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birth order in Korea during 1975-1984 focusing on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births and the changes in birth order distribution by age of mother and place of residence. The average birth order has declined more in provinces than metropolitan cities during the past ten years. And the percentage of birth occurred to mothers aged 20 to 29 has increased. The average birth order in metropolitan cities was below 2.0 in 1977, while that of provinces became under 2.0 in 1983.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an increasing possession of mass communication facilities have 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fertility level between 1975

and 1984. According to the findings, if the economic level rises continuously and the fertility attitude sustains, fertility will decline continuously in the future and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also will arrive at zero point in the near future, and Korean population structure will be stabilized.

2049. 이숙현,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 22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9. 5, pp.161~182.

Lee Sook-Hyun, “The Marital Adjustment of Korean Working Class Coupl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2,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5, pp.161-182.

결혼적응을 배우자에의 적응과 시부모에의 적응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특히 자녀의 출생이 부부 관계 및 시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두개의 이론적 가설은 ① 유교적, 가족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볼 때, 자녀의 출생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과 ② 자녀의 출산은 시부모와의 관계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발견은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들은 부모로의 역할 전환을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자녀 출생 후 결혼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자녀의 출산은 시부모와의 관계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녀의 출산과는 상관없이 결혼초기에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50. 이효재, 지은희, “한국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 실태 :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 22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9. 5, pp.69-98.

Lee Hyo-Jae & Ji Eun-Hee, “The Working Class and Reproduction of Labor Power”(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2,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5, pp.69-98.

한국사회에서 증대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족적 대응양식으로서의 생활

의 한 측면을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이론적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가족은 노동력 판매를 통해 임금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소비재를 구입하며 가사노동을 통해 노동력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해내는 기능을 담당하며, 또 노동자가족의 소득결합과 내핍적 소비에 의한 재생산전략에서 여성은 생산과 재생산의 이중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 가족구성원의 소득결합방식, 주생활을 중심으로한 가계비분석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마모와 생계비 증대에 대한 다처방안을 알아보고, 여성의 생산노동에의 참여가 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특히 전통적인 성별분업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한다.

2051. 張相姬, “도시 중년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 22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1988. 10, pp.61-90.

Chang Sang-Hee, “Roleless Phenomena and Anomie among Middle-Aged Urban Housewiv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1,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10, pp.61-90.

도시 거주 중년주부들의 역할부족 또는 역할부재현상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가설은 주부의 역할수행도와 아노미간에負적(-)인 관계가, 주부의 역할수행도와 결혼만족도간에 正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인 중년주부들의 아내로서의 역할수행이 결혼만족도를 높여주고 아노미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이 실증되었으며, 2) 결혼만족도는 아노미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3) 모든 변수들 중에서 사회봉사 단체 참여도가 중년주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고 아노미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4) 남편의 퇴근시간이 빠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2052. 張玄燮, “가족형태 재분류를 위한 시론”(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8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2, pp.181-200.

Chang Hyun-Seob, “An Experimental Trial for the Recategorization of Family Pattern in Korea”(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8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8. 12, pp.181-200.

This study tries to constitute the frame of reference for quantification of the process of family formation in Korea. To emphasize the dynamics of the family, two conceptual axes of generation and the cycle of the family are synthesized, and developed seven forms of the family.

2053. 한남제, “도시주민의 친족관계”(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 22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1988. 10, pp.35-60.

Han Nam-Jae, “Kinship Structure in Urban Socie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1,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10, pp.35-60.

한국에서 친족의 중요성 감소와 친족관계의 약화를 실증적으로 알아본다.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차 친족간에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제사, 생일, 명절에는 부계친족간의 접촉이 빈번하고 일상시에는 모계친족과의 접촉이 빈번하다. 한국도시주민들간에는 전통적인 친척의식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은 혈연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까운 친척이 이웃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전통적 친족의식이 강할수록 모계친족과의 접촉은 빈번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은 친족체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수정학대가족이론이 우리의 친족제도를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4. 직업과 노동력

2054. 김문조, “한국의사들의 직업의식”(국문), 현상과 인식 제13권 1호 및 2호 통권 46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89. 7, pp.26-52.

Kim Moon-Jo, “Professionalism of Korean Medical Doctors”(in Korean), *Phenomena and Conceptions* Vol.13 No.1 and 2, Korean Institute for Humanities-Social Science (Institution), Seoul, Korea, 1989. 7, pp.26-52.

직업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의사들의 직업의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한 것이다. 홀(Hall)이 구성한 바 있는 전문직업성척도를 사용하여 468명의 현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사들이 지난 전문직업성의 구조 내지는 특수성을 밝히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의사들은 직

업만족도, 직업친화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직의 기능적 중요성은 매우 강하게 인식하나 그 인식에 방어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고, 전문인 본연의 소명의식을 주요 요소로서 간주하기는 하나 이타주의 대 이기주의가 갈등하는 상황 하에서 후자에 집착하여 자기 중심적인 소명감을 소지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의사의 전문적 지식이 질병진단이나 치료의 영역을 넘어 규범적, 제도적 측면에 두루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서구 지역에서 전문직업성의 일반적 성격으로 거론된 사항들 중 자율성의 요소가 우리 의사들의 의식에 가장 제대로 체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사들은 역할 수행에 따른 금전적, 사회적 보상 못지않게 직업자체와 직결된 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돈만 아는 존재라는 부정적 평가는 지나친 편견임이 확인된다.

2055. 김용욱, “근로여성의 법적 지위”(국문), *여성연구* 제6권 제3호, 한국여성개발원, 1988.9, pp.44-80.

Kim Yong-Wook, “Legal Status of Women Employees”(in Korean), *The Women's Studies Vol.6 No.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8. 9, pp.44-80.

최근 1980년대에 들어서 남녀평등의 의식과 근로여성의 의식은 크게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식집약산업, 금융서비스업, 정보통신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직 여성 인력 요구가 늘어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의 고용차별철폐와 여성의 실력배양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1988년 4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성별에 따른 응시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강제규정이 없는 이 법률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차별을 없애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문교당국의 적극적인 교육지도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내지 여성자신도 확고한 직업관과 실력으로 취업전선에 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근로여성에 대한 실태분석, 근로여성의 국제적 지위, 여성 차별의 극복을 위한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의 과제 등을 살펴보면서 근로기준법의 검토도 아울러 행하고 있다.

2056. 金漢坤, “노동의 분화에 관한 생태학적 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8. 12, pp.3-10.

Kim Han-Kon, “The Division of Labor in Korean Cities, 1985 : An Ecological Analysi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 12, pp.3-10.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시들 간에 있어서의 노동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봄으로써 이론적 개념을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며, 둘째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서로 다른 선진 사회의 노동의 분화 결과를 한국의 도시간의 노동의 분화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끝으로 1962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한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의 분화 정도와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있다.

2057. 羅看采, 정근식, “직업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1988.10, pp.109-134.

Na Gahn-Chai & Chung Geun-Sik, “Subjective Social Distance among Different Occupational Strat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 1,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10, pp.109-134.*

직업집단들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의 분포 경향을 탐색한다.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 (1) 특정의 직업에 대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는 응답자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에서보다) 낮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 (2) 특정의 직업에 대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는 응답자의 계급위치와 유사한 직업에서 낮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 자료분석 결과, 이 두 가설은 겸증된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여러 직업집단 중에서 택시운전기사 집단의 특이성이 사회적 조건과 거리감의 성향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둘째, 지위가 높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지위가 낮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인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와 상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가설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에 대한 중간계급 응답자의 거리감을 비교해 본 결과 노동계급을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는 계급동맹론 및 중간계급의 노동계급화 명제와 관련지워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058. 박경문, “우리나라 노사협력제도의 발전배경에 관한 소고”(국문),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0집 제1권, 경성대학교, 1989. 3, pp.363-385.

Park Kyung-Moon, “A Study on the Devel-

opment of Joint Consultation System in Korea" (in Korean), *University Journal* Vol.10 No.1, Kyungsung University, Pusan, Korea, 1989. 3, pp.363-385.

오늘날 노사협력제도의 대표적 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노사협의제의 생성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발전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노사협의제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환경 및 의식수준에 상호작용이 있는가, 그리고 노사간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노사협의제가 선진국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억지로 적용시키고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체질에 알맞는 노사협력제도를 스스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59. 徐載鎮, “한국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연줄망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9. 5, pp.47-68.

Suh Jae-Jean, “A Study of Social and Political Networks of Korean Capitalist Clas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2,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5, pp.47-68.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연줄망을 재계 내부 및 외부와의 연줄망으로 대별하고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분석한다. 한국 재계 내부의 연줄망은 친, 인척이 연줄망의 핵을 이루며 지역도 중요한 기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은 뉴욕의 소수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다른 기업과 경영중역의 연줄망을 형성하여 통제하고 있는 미국과는 매우 다르다. 재계 외부와의 연줄망으로는 자본가가 문화단체, 학교단체, 스포츠협회 등에 다수의 중역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정부쪽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각료의 35%가 재계출신인 미국의 경우와는 현저히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기업인의 직접적인 진출이 아닌, 자녀의 혼매 등을 통해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정치엘리트와 상당히 흡족한 인맥을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간접적, 비공식적인 연결에 대해 기업의 하부, 상부, 내부, 일반적 정치상황의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2060. 申榮秀, “〈코호트〉 규모와 상대수입 : 방법론에 대한 이론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8. 12, pp. 11-21.

Shin Young-Soo, “Cohort Size and Relative Earnings : A Survey on Approaches and Em-

pirical Results”(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 12, pp.11-2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teratures on the topic and summarize them by approaches and empirical results from different countries. The author discusses as well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methods for estimating cohort size effect on earnings.

2061. 李昶基, “경찰공무원의 전문직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직업화 측정지표개발을 중심으로”(국문), 대전대학 논문집 제7권 제2호, 대전대학, 1988. 12, pp.43-60.

Lee Chang-Gi, “A Study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Police”(in Korean), *Theses of Daejon College* Vol.7 No.2, Daejon College, Daejon, Korea, 1988. 12, pp.43-60.

경찰의 직업적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직업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구조적 행태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경찰공무원의 전문직업화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문직업화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행정학에 있어서의 전문직업주의 논쟁을 통해서 행정학이 수용할 수 있는 전문직업주의 내용을 밝힌 다음 경찰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논의를 살피면서 우리나라 경찰구조의 특색을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경찰공무원의 전문직업화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개발을 위해서 이의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구조적 기준과 경찰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성격 내지는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행태적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2062. 전경자, “한국 간호사의 사회운동 :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일 검토”(국문), *현상과 인식* 제13권 1호 및 2호 통권 46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89. 7, pp.53-69.

Jun Kyung-Ja, “Social Movement of Nurses in Korea : An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Prospects”(in Korean), *Phenomena and Conceptions* Vol.13 No.1 and 2, Korean Institute for Humanities-Social Sciences Institution, Seoul, Korea, 1989. 7, pp. 53-69.

이 글은 한국 간호사들의 사회참여 과정을 밝혀내고, 민족해방과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체 사회적 노력 속에 간호사 집단이 서야 할

자리와 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2063. 조병희, “한국의 의료전문직의 구조분석”(국문), 현상과 인식 제13권 1호 및 2호 통권 46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89. 7, pp.9-25.

Cho Pyung-Hee,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Medical Professions in Korea”(in Korean), *Phenomena and Conception* Vol.13 No.1 and 2, Korea Human-Social Science Institution, Seoul, Korea, 1989. 7, pp.9-25.

한국의 의료전문직을 중심으로 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존재기반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하에서 성장해 온 한국의 의료전문직은 역사적으로 그 조직내적 웅집력이 취약하였다. 해방 이후 국가 대신 스스로의 자본축적을 통한 의료생산기반의 확충을 이루려 온 의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의사자본의 형성에 치중한 결과 의사들은 대내적으로 의사들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고 대외적으로 제 세력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된 시장독점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의료전문직의 위상은 국가가 그 지배를 위하여 억압적 수단을 우선시하고 의료를 포함한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통제 기능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산업사회가 성숙해 갈 때 의료의 사회통제 기능이 보다 더 요청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64. 조병희, “한국보건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전문직종사자 사이의 권력관계”(영문 및 영문요약),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회보 제17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89. 3, pp.1-36.

Cho Byong-Hee, “The Politics between State Power and Professional Power in Korean Health Care System”(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17,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 3, pp.1-36.

Since the late 1970's,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has changed significantly. The state increased its intervention into the health care system to expand health services to people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edical practice. But physicians tried to protect their privileges and private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o buffer “hazardous” state intervention. Between the state and physicians, a group of

physicians, called “medical reformers” in this paper, tried to compromise both sides. While such an attempt was not fully successful, their goal to rationalize the structure of the health care system significantly impacted the current debate o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politics between the state and medical profession.

2065.洪斗承, “직업과 계급 :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9. 5, pp.23-46.

Hong Doo-Seung, “Occupation and Class : Exploring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Classes from Cluster Analysi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2,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5, pp.23-46.

집락분석과 다차원척도 구성기법을 활용하여 계급구분에서 구획된 계급집단이 내부적으로 과연 동질성을 갖는지를 검토한다. 사회조사에서 얻어진 21개 직업의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직업집단간의 근접성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직업집단의 집약화를 시도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위전문직 및 고위행정, 관리직 종사자로 이루어지는 중상계급은 다른 어떤 계급집단과도 구분되는 별개의 집단으로 존재한다. 2) 자영과 피용의 구분은 계급적 귀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모든 직업군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문기술직 종사자에 있어서는 그 계급적 귀속이 명백히 구분되나, 생산, 기능직 종사자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변수로 활용치 않을 경우 자영업주와 피고용자는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3) 점원 등 피용의 판매직 근로자는 신중간계급이 아닌 근로계급의 범주로 분류된다. 4) 자영상인과 자영서비스업주 등 구중간계급의 성원들은 신중간계급과 근로계급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신중간계급보다는 근로계급에 더 큰 유사성을 보인다. 이 논문은 특히 중간계급의 내부적 분화와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구중간계급은 계층의 측면에서 보면 상류층과 하류층의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하고 있으나 각각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계급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사회구조분석에 있어 집락분석과 다차원척도 구성기법이 가지는 효용성에 주목한다.

5. 경제발전

2066. 국민호, “정부와 기업 : 1980년대초 경제자율화 조치 후의 변화와 그 한계점”(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1988. 10, pp.155-182.

Kuk Min-Ho,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 Limits of the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Early 1980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22 No.1,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10, pp.155-182.*

한국의 발전과정이 서구나 남미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발전과정과는 다르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기업발달과정을 중앙정부의 역할과 연결시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산업발전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왔는데,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적으로 경제의 능률과 합리성을 지향했다기보다는 현 정권과 기존의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한에서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은 초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점차 형식주의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유도하여 결국에는 정부의 금융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대다수의 대규모적인 부실기업들을 양산시켜 경제구조를 왜곡했다고 본다. 여기서,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사회구조의 모순을 해결함이 없이 정부가 주동이 되어 단지 시혜형식으로 베풀어진 경제자율화정책은 일부 대기업에게로의 자본집중과 정부의 경제체계에 대한 금융및 행정통제가 계속되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요원한 문제인데, 정권의 정당성이 약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오직 이러한 통제권을 보유함으로써만이 대기업들을 정부가 계획한 경제발전방향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모순에 놓여있다. 이러한 한에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은 경제적 합리성및 효율성 위에 정부의 정권유지라는 비경제적 측면이 가미되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경제발전의 한계점이다.

2067. 金錫千, “일본경제의 구조분석과 한국의 대일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0집 제1권, 경성대학교, 1989. 3, pp.323-362.

Kim Suk-Chun, “A Study on the Structure of Japanese Economy and the Way to Increase Korean Exports to Japa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University Journal Vol.10 No.1, Kyungsung University, Pusan, Korea, 1989. 3, pp.323-362.

먼저 무역 구조면, 특히 수입구조와 유통면에서의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질을, 주로 대일 시장확대는 가능한가, 일본시장에서의 아시아 NIES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뒤,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대일수출확대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2068. 金仁龍, “한국 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정부 투자기관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목포대학 논문집 제9권 제2호, 목포대학, 1988. 12, pp.117-142.

Kim In-Ryong, “A Study on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in Korean Public Enterpris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of Mokpo National College Vol.9 No.2, Mokpo National College, Mokpo, Korea, 1988. 12, pp.117-142.*

오늘날 공기업은 각 나라마다 그 설립동기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기업이 경영부실로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공기업운영의 비능률성을 일으키는 몇 가지 원인 중에서도 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 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회계제도를 중심으로 사기업과 외국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제도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69. 宋大熙, 宋明熙, “우리나라 獨占公企業의 성장 요인 분석”(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개발연구 제10 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89. 2, pp.39-60.

Song Dae-Hee & Song Myung-Hee, “Growth of Monopolistic Korean Public Enterprises : Korean Electricity Power Corporation and Korean Telecommunication Authority”(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Vol.10 No.4,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9. 2, pp.39-60.*

정부투자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한국전기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성장요인을 가격요인과 생산성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생산성요인을 다시 투입요소별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의 기간업체인 이들 두 기관은 기업의 성장을 1979-82년 기간중에서와 같이 가격적 수단에 의하기 보다는 실질적 생산성증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생산성향상을 위한 산출상품 및 투입요소의 합리적 재구성 및 관련기술개발에 보다 역점을 두는 경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70. 李承勳, “成長裏面의 한국경제 : 분배구조와 노사관계”(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6, pp.81-100.

Lee Seung-Hoon, “Korean Economy behind the Growth : Income Distribution and Labor Problem”(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11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 6, pp.81-100.

우리경제가 지난 20여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 오는 가운데 소득분배의 구조가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가 그 과정을 살피고, 그 결과로 정착된 현재의 소득분배구조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분배적 불만이 매우 극적으로 표출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분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알아보며, 현재야말로 이 같이 누적된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는 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

2071. 李政甲, 李建喆, “금융혁신과 한국 금융사업의 발전방향”(국문 및 영문요약), 목포대학 논문집 제9권 제2호, 목포대학, 1988. 12, pp.143-164.

Lee Jeong-Kap, Lee Kuan-Cheol,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Korean Financial Industr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of Mokpo National College* Vol.9 No.2, Mokpo, Korea, 1988. 12, pp.143-164.

주요 선진국들이 처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금융당국의 규제가 줄어들고 금융기관의 창의, 경쟁,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진전되어 온 금융혁신의 실태 및 배경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금융혁신 현황을 살펴본 뒤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72. 林鐘哲, “국제화 시대의 한국 경제 : 무역과 경제협력”(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6, pp.61-80.

Lim Jong-Chul, “A Perspective on Korean Economy”(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11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6, pp.61-80.

한국의 국제경제적 발전을, 경제기 (1945-61), 효율적 성장기 (1962-73), 성장 둔화기(1974-85), 그리고 후자기조 정착기 (1986-)의 4단계로 구분하여 살피고, 세계 제 12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에 대해,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과 무역 대국에 상응한 책임을 질 두 가지 새로운 과제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제를 무역과 외환 및 경제협력의 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073. 조영복, “조직구조 구성변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제조기업체를 대상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인제논총* 제4권 제1호, 인제대학, 1988. 8, pp.107-132.

Cho Young-Bok, “A Comparative Study on Dimensions of Organization Structure in Korean Industrial Firm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Inje Journal* Vol.4 No.1, Inje College, Kimhae, Korea, 1988. 8, pp.107-132.

조직구조 구성변수간의 관계를 국내의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보고 국외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조직구조 구성변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조직구조 구성변수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직구조 구성변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조직구조 구성변수 상호간의 관계를 한국 기업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검토한 후, 그 관계가 국외의 연구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한다.

2074. 左承喜, “한국의 시장개방결정요인 분석”(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개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8, pp.65-90.

Jwa Sung-He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Market Opening”(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Vol.10 No.2,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8. 8, pp.65-90.

정책행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대한 수요, 공급 및 실제시장개방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의 행태를 분석한다. 로짓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은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 요인들 -- 국내 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 주장이나 미국의 개방압력 등 -- 에 의해 왜곡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공정무역의 가치 아래 가지고 있는 미국의 개방압력은 오히려 미국기업들

의 이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 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의 합리적 원칙의 견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한다. 또한 금후의 경제민주화 추세의 진전으로 개방정책을 포함하는 일반 경제정책의 입안, 추진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의 왜곡 및 진행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2075. 洪勤文,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진보율 측정, 기여도분석 및 적정기술선택의 과제에 대한 연구”(국문), 목포대학 논문집 제10권 제1호, 목포대학, 1989. 6, pp.19-62.

Hong Dong-Moon, “An Empirical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echnological Progress, Its Contribution Rate to Value Added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in Korean), *Theses of Mokpo National College Vol.10 No.1*, Mokpo National College, Mokpo, Korea, 1989. 6, pp.19-62.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기술진보율을 측정하고 소득에 대한 기술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지만 방법론상으로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기술진보중 Hicks의 중립적 기술진보를 계측하고 부가가치에 대한 기술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다. 측정과 분석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진보율 제고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은 총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2076. 洪玩杓, “우리나라의 금리현황과 금리자유화”(국문 및 영문요약), *인제논총 제4권 제1호*, 인제대학, 1988. 8, pp.77-106.

Hong Wan-Pyo, “A Study on Deregulation of Interest Rate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Inje Journal Vol.4 No.1*, Inje College, Kimhae, Korea, 1988. 8, pp.77-106.

금리자유화에 한정하여 금융의 자율화를 살펴보고 있다. 금리자유화는 그것이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연히 부실투자를 방지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금리자유화의 진척은 부진한 실정이며 금리자유화를 위한 기반조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금리자유화에의 진척정도를 개관해 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금리자유화로의 진행이 부진한 이유를 짚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로

의 구체적인 일정과 금리자유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시급한 수단들도 지적하고 있다.

6. 정치발전

2077. 金光雄,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과 국가이념”(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6, pp.3-30.

Kim Kwang-Woong, “State Ideology and Democracy of Korea: A Survey Research”(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1 No. 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 6, pp.3-30.

1988년 10월에 시행된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에 대한 전국적인 표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정치적 민주화의 가능성과 그 바탕으로서의 민주의식의 실체를 알아 본다. 분석의 결과, 우리 국민의 정치지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공산주의 이념의 수용에는 한계가 뚜렷하며, 독재에 대해서는 거의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 중심제 보다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과거와 현재의 정치체제는 독재 성향이 절다고 비판하면서도 내일의 체제는 민주적일 것이라는 희망적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추구하지만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쓰고 있다기 보다는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필자는 여기서 민주화의 요구가 가없음을 느끼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국민의식과 국가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논의하고, 국가와 국민은 실천의 세계에서 서로 도전하고 자극하고 통일하여 자기 모순을 지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78. 김부기, 고르바초프의 소련외교 정책의 변화와 그 한반도에의 영향 (영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5, pp.1-6.

Kim Boo-Ki, “Gorbachev's Restructuring of Soviet Foreign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in English),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0 No. 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5, pp.1-6.

Gorbachev's restructuring of foreign policy consists of two dimensions. The first dimens-

ion is a shift from the militarist to the political approach. The second is the economic opening. Gorbachev's restructuring of foreign policy as such have three impacts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political approach is creating a triangular detente of the U.S., the Soviet Union and China. Second, the political approach led to the formation of momentum towards the solution of regional conflicts. Third, the policy of "opening" the Soviet economy made the Soviet Union interested in the expanding econom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Newly industrialized South Korea could provide capital and technology that the Soviet Union needs, particularly for the development of Siberia and Soviet far east region.

2079. 金錫俊, “한국정권변화의 정치경제 : 세계체제, 국가, 사회계급간의 상호활동을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정치학회보 제22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1988. 6, pp.67-96.

Kim Suk-Joon,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n Political Transformation : Interplay of World System, the State, and Social Class”(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1,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6, pp.67-96.

한국의 정권변동에 따른 권위주의의 심화는 그 동안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조합주의, 그리고 종속적 발전론 등과 같은 외국에서 형성된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 이론의 적실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준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이론의 부분성과 정태성을 극복하면서 한국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권변화를 세계체제, 국가, 그리고 사회계급간의 상호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정권변화의 추이가 초기 세계국가체제주도에서 국가주도로, 그리고 최근 사회계급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이들 세 변수의 자체 운동 법칙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2080. 金炯局,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교정치경제적 분석”(국문),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88. 겨울, pp.299-320.

Kim Hyung-Kook, “An Analytical Framework of Industrial Adjustment Strategies”(in Korea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2,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winter, pp.299-320.

비교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제기된 산업구조 조정 문제를 産業部間接近에 입각해서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구조조정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네 가지 다른 발전전략 단계(수입대체, 경공업수출주도, 중공업수출심화, 첨단산업수출주도)로 나누고, 이 발전전략단계에 적용되는 정부시책을 거시경제적 운용방식(성장위주, 안정위주)과 미시적 재량행위(선별조정, 포괄조정)로 대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전략을 세 가지(위험부담, 위험적용, 위험회피) 범주로 나눈다.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은 양자의 전략선택에 따라 표출되며, 정부의 개입정도는 정부주도, 시장형성, 혼합형으로 나타나는데, 정부와 민간부문의 산업구조조정전략은 상치 혹은 수렴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개입은 개개산업에 내재하는 경제적, 기술적 속성, 개개산업구조를 전환할 때 형성되는 사회집단 연합, 정부의 특정산업선호와 국가능력에 따라 다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2081. 朴鐘喆, “제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정치학회보 제22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1988. 6, pp.97-118.

Park Jong-Chul, “State Structure and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n the First Republic of South Korea”(in Korea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1,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6, pp.97-118.

제1공화국이 강제적 국가기구와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정책의 형성과 집행면에서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보고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에서 발생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 국가자율성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국가엘리트의 격리성, 국가능력, 국가의 정책망, 국가의 경제적 자원 등을 설정하고 이 네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국가자율성의 성격과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있다.

2082. 裴肯燦, “닉슨 독트린과 동아시아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비교분석”(국문),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88. 겨울, pp.321-340.

Bae Geung-Chan, “Nixon Doctrine and the Increasing Authoritarianism”(in Korea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2.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Winter, pp.321-340.
- 그간의 제 3세계 권위주의체제 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분석들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은 국제정치적, 외부적 안보변수를 동아시아에 있어서 권위주의화 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입한다.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권위주의 체제 등장이 모두 집권 보수반공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에 주목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넉넉 득트린에 의해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권위주의체제 등장과의 상관관계를, 집권 엘리트그룹의 대내외적 안보위기의식과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하고 있다.
2083. 申道澈, 閔丙元, “한국인의 정치성숙도”(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6, pp.31-60.
- Shin Doh-Chul & Min Byoung-Won, “The Political Sophistication of the Koreans”(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1 No. 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 6, pp.31-60.
-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한국인은 대다수가 정치과정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정도의 관심과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당면한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호를 알고 있다. 그러나 타인들의 정치적 선호에는 관심을 베풀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정체제에 대하여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 체제에 만족과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1/6 정도에 불과하여 한국 정치의 민주화는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가 정치적 성숙도가 하나의 주요한 매개변수로서 정치분석에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하며, 신생 민주 국가가 안정적이고 완전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중간층보다 정치적 중간층의 성장을 더 필요로 한다는 새로운 정치성숙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084. 辛承權, “중-소의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와 전망”(국문 및 영문요약), 중소연구 제12권 제1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88. 3, pp.139-168.
- Shin Seung-Kwon, “PRC and USSR's Policies toward Korea : Changes and Prospect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ino-Soviet Affairs* Vol. 12 No. 1,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8. 3, pp.139-168.
- 한-중, 한-소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① 중-소의 대한접근의 표면화 ② 중-소 관계의 협단화와 앞으로의 전망 ③ 북한의 입장과 태도 ④ 미국의 입장과 태도 등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종합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소의 한국에 대한 변화를 아시아에 대한 정책변화와 관련지어 분석한 후, 한-중, 한-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중-소 관계 및 북한, 미국, 일본의 입장 및 태도를 규명하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중, 한-소 관계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해 보고 있다.
2085. 魚秀永, 李南永, “한국 대학생 및 고교생들의 민주의식과 안보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념적 갈등을 중심으로”(국문),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88. 겨울, pp.243-264.
- Auh Soo-Young & Lee Nam-Young, “Korean Student's Political Beliefs on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in Korea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2,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Winter, pp.243-264.
- 한국학생들의 민주의식과 안보의식에 대해 개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의식과 안보의식이 학생 사회에 어느정도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념적인 하위집단들을 구분한다. 각 하위집단들의 이념적 특징을 서술하고 안보의식과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서의 하위집단들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 있다.
2086. 柳世熙, “중-소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경쟁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중소연구 제12권 제2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88. 6, pp.131-168.
- Yoo Se-Hee, “A Study of Sino-Soviet Competition toward North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ino-Soviet Affairs* Vol. 12 No. 2,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8. 6, pp.131-168.
- 한반도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강 가운데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소의 영향력 경쟁에 작용하는 주요요인을 검토한다. 영향력 경쟁 수단의 강점과 약점, 중-소 경합의 한계 등을 개괄한다.

2087. 李大雨, “정치변동에 있어서 혼란의 역할 : 중국의 경우”(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정치학회보 제22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1988. 6, pp.135-154.
- Lee Dae-Woo, “The Role of Chaos in Political Change: The Case of Communist Chin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1*,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6, pp.135-154.
-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변동을 모택동의 혼란관에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체계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지고 역사적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지만 각국 공산주의 정권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소련 및 동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중국은 중국혁명에서부터 공산정권 수립 이후 모택동이 취한 변동의 과정에서 혼란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구사한다. 모택동은 단순히 안정에 대한 위협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관으로서 혼란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인민에 의한 혼란을 통해 모순을 폭발시키고 다시 단결, 즉 재집권이라는 그의 모순론적 문제 해결을 실행하고 있으며 결국 중공 정치변동에서 혼란이란 파괴적이라기 보다는 긍정적인 양면이 존재하는 창조적 혼란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있다.
2088. 李錫浩, “북한 정치권력 계승에서 軍의 역할”(국문),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88. 겨울, pp.279-298.
- Lee Suk-Ho, “Military Role of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in Korea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2*,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Winter, pp.279-298.
- 북한의 권력세습체제구축과정(1973.9-1988.9)에서 군대의 역할과 입장이 무엇이었으며 이 기간중 군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찾아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대는 김정일의 세습체제구축과정에서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동시에 책임도 그만큼 증대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김일성의 사후에도 군대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나, 김일성이 오래 살면 살수록, 북한의 대외개방능력이 점점 향상된다면, 권력승계는 무난할 것이며 군대의 역할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89. 이윤식,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국문 및 국문 요약), *한국정치학회보 제22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1988. 6, pp.231-254.
- Lee Yoon-Shic, “An Analysis of the Causal Mechanism in the Time-Series Quasi-Experimental Design for an Impact Evaluation of a Public Policy”(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1*,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6, pp.231-254.
- 정책영향평가에 기존의 인과적 분석은 시계열 설계하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분석에 유용한 하위목적 시계열 준실험 평가설계 접근법을 고찰하고, 아울러 이 설계접근법에 적합한 ARIMA 모형 접근법의 장점 및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2090. 崔平吉, “한국의 정치문화와 진보적 중산계급의 정치의식”(국문),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88. 겨울, pp.265-278.
- Chay Pyung-Gil, “The Political Attitudes of Liberal Middle Class in the Korean Political Culture”(in Korea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2*,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Winter, pp.265-278.
- 시민 개인이 정치정황에 대해 느끼는 인지와 평가 그리고 규범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정치신념 체계로써의 정치문화를 파악한 후, 한국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진보적 중산계층의 정치의식을 설명해 봄으로써 이들의 정치문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본 시민정치참여문화에서, 한국의 경우는 多元多岐化된 정치욕구를 형성해가는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안정의 정치문화가 우리나라에도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2091. 하용출, “소규모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행태 : 북한과 로마니아의 예”(영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12, pp.23-32.
- Ha Young-Chool, “Behaviors of Small Socialist States: The Case of North Korea and Romania”(in English),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0 No. 2*,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8. 12, pp.23-32.
-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and Romanian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with three questions in mind. First, based on the analysi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s in their policies, distinctive and unique features of North Korean policies are demonstrated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special geopolitical situation of North Korea. Second, a conceptual discussion is made to characterize the nature of deviant behaviors of two country. Related to this is to identify tactics and strategies of small socialist states in dealing with the super socialist power. Lastly, the attitudes and responses of these states to the change occurred in the Soviet Union since Gorvachev came to the power are analysed to discuss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se countries.

7. 도시 및 지역개발

2092. 金永龍, “지방금융발전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지역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8. 12, pp.105-122.

Kim Young-Y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Local Banking Marke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20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8. 12, pp.105-122.

지방금융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지방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화폐금융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금융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지방금융은 實家物부문과 함께 중앙에 비하여 극히 저발전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공급선도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성장화폐의 공급도 자본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금융의 선도적 기능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實物經濟의 건설을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93. 김택규, 이영진, “합천댐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와 적응에 관한 연구”(국문), 인문연구 제10권 제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8. 9, pp.161-180.

Kim Taik-Kyoo & Lee Young-Jin, “A Study on Migration and Adoption of People in Submerged Area due to Hapcheon Dam Construction”(in Korean),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Vol. 10 No. 1,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Yeungnam University, Gyongsan, Korea, 1988. 9, pp.161-180.

비자발적인 이주민 중에서 댐건설로 인해 야기

되는 문제점을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합천댐의 이주민이 처한 상황을 주요 자료로 사용하여, 먼저 이주민들의 이주와 적응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주와 재적응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문화적 배경 및 내외적 상황과 관련시켜 규명하고 있다.

2094. 宋仁城,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개발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지역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8. 12, pp.1-52.

Song In-Sung, “A Study of the Coastal Zon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20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8. 12, pp.1-52.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안지역 개발 및 관리전략을 거시적으로 제시한다. 연안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연안지역의 일반적인 개념과 이 연안지역이 자원으로서 갖는 의의를 정립한다. 그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선진국의 연안지역 개발과 관리를 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평가하고, 선진국의 접근전략과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연계하여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다.

2095. 劉鐘九,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 소득 및 후생불평등도의 추계와 분석 : 1984년 횡단자료를 중심으로”(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개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8, pp.117-***.

Yoo Jong-Goo, “An Analysis of the Degree of Income and Welfare Inequality among Urban Households in Korea in 1984”(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Vol. 10 No. 2,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8. 8, pp.117-.

1983년 한해의 「도시가계연보」(전산테이프자료)를 이용해 도시가구 계층간, 그리고 계층내의 소득 및 소비 후생불평등도를 측정한다. 분석의 결과, ① 도시가구의 불평등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재산소득의 유무이며 ②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주로 학력별 임금격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③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자본이득을 좌우하는 일반 물가수준의 불안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불

- 평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기수 준의 안정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96. 李東培, “고령화사회의 도시환경과 도시계획”(국문), 사회복지 제35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9. 3, pp.60-85.
- Lee Dong-Bae, “Urban Environment for the Society in Aging”(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5 No. 1,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9. 3, pp.60-85.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동향과 그에 따른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한 후 금후 대도시에 있어서 노인의 주택 및 시설에 관해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노인복지정책은 극히 제한된 분야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측면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시설 및 환경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97. 曹在六, “지역산업경제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지역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8. 12, pp.83-104.
- Cho Chae-Youk, “A Study on Policy Issues in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Vol. 20 No. 1,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8. 12, pp.83-104.
- 당초 1987년부터 실시하려던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보고서들을 통해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격차 발생원인이 공업화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한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지역경제권을 분류하면서 지역경제권별 공업화 관련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공단배치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관련 법의 효과를 종합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다.
2098. 崔日燮, “사회계획 수립의 모형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12, pp.165-184.
- Choi Il-Sup, “A Study on Models for Developing Social Plans”(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0 No. 2,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8. 12, pp.165-184.
- 1980년대를 전후하여 크게 고조되고 있는 社會計劃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바 사회 정책의 실무분야의 관심에서 연원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회계획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제계획과 사회계획의 관계를 규명하며, 사회계획의 수립영역을 찾아낸 후, 끝으로 사회계획의 실천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 8. 근대화와 사회변동
2099. 姜賢斗, “개방사회와 언론”(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6, pp.155-167.
- Kang Hyeon-Dew, “The Korean Mass Media in the Age of Open Society”(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1 No. 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 6, pp. 155-167.
-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세 계적으로 몰려오는 커뮤니케이션의 脱規制가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바 언론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르는 커다란 변화라는 도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언론과제를 다룬다. 우선 정보와 문화의 자유유통이 갖는 이데올로기성, 문화의 종속, 의식의 종속 등을 고찰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살피 후, 개방시대의 언론문화와 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1988년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국민 문화의식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2100. 김석준, “제주도 농촌주민의 계결사체 참여와 사회적 유대”(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9. 5, pp.117-142.
- Kim Suk-Joon, “Participation in Kye-Association and Social Solidarity among Rural Villagers in Cheju Island”(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2 No. 2,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5, pp.117-142.

변화하는 농촌사회에서 계결사체가 마을내 인간관계와 사회적 유대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본다. 통합가설과 격리가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가설의 검증은 제주도내 24개 농촌마을에서 얻은 자료와 측정된 변인들의 통계적 분석에 의존했는데, 결과는 통합가설의 거부와 격리가설에 대한 지지로 판명된다. 따라서 촌락사회에서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유대와 관계된 계결사체의 기능은 격리론의 입장에서 파악할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

2101. 박길성, “농업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틀”(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1989. 5, pp.99-116.

Park Gil-Sung,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Agrarian Ques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2 No. 2,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5, pp.99-116.

기존의 페닌의 마르크스주의적 농업이론과 차아노브의 비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업생산형태를 분석하는 대안적 이론으로 생계전략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외부의 압력 속에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계의 단위로서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골격으로 하는 생계전략이론은 농업변동의 메카니즘을 잉여이전으로 표현되는 축적논리와 농민의 시각에서의 재생산 논리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는 이 이론은 농가경제활동의 성격을 단순재생산에로의 지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단순재생산 지향을 농민의 선호나 농민자체의 심리상태 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농가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조건이 농가의 단순재생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조건과 역사적인 경험에서 이해하고 있다.

2102. 劉在天, “올림픽과 사회변동”(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6, pp.101-122.

Yu Jae-Cheon, “Impact of the Seoul Olympics on Korean Society”(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1 No. 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 6, pp.101-122.

서울 올림픽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의 일부를 스포츠 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분석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얻어진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올림픽의 중요한 영향을 재정리해 보면, 첫째,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갖게 됨으로써 일제 식민지통치시대나 8.15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지배 하에서 형성된 민족적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둘째, 국민 의식의 국제화로 우리가 주체적인 자세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결과로 전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세째, 특히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던 냉전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대 이데올로기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네째, 사회정서 면에서의 국민통합은 사회정서적인 국민통합의 계기만 주어진다면 적어도 지역감정이 야기하는 갈등만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2103. 유희정, “사회불평등구조에 관한 중간계급의 의식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1988. 10, pp.135-154.

Yoo Hi-Jung, “A Stud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Middle Clas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2 No. 1,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10, pp.135-154.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간계급에 관한 이론적 시각들을 검토함으로써 생산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보다는 분배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베버주의적 시각이 중간계급을 개념화하고 그들의 의식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하다는 입장에서 쓰인다. 한국의 중간계급은 현사회 불평등구조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매우 비판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지정책을 실시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로 변화해가야 한다는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평등이나 첨예한 계급갈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한국의 중간계급은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세력이 되리라고 전망한다.

2104. 李成海, 金至燮, “중간계급의 계급적 지위에 관한 제견해”(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7*

권 제1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8. 6, pp. 213-240.

Lee Sung-Hae & Kim Ji-Sup, "A Review of Some Viewpoints on the Class Location of the Middle Clas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7 No. 1, College of Social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pp.213-240.

현대 선진 산업사회에 있어서 계급에 관한 논의 중 주요 쟁점의 하나가 중간계급의 문제이다. 중간계급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적 계급으로서 의미를 갖는지 여부, 자본주의적 사회발달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간계급의 내부 구성요소와 집단 및 이들의 내-외적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198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의 양적 변화에 관한 여러 분석 결과는 계급의 양극화 혹은 중간계급의 확대라는 상반된 견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계급분석에 있어 이러한 중간계급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치체된 상태라고 보고, 한국사회의 중간계급분석의 토대제공을 위해 계급관계와 중간계급의 분석경향을 고찰한 후, 2차대전이후 서구의 중간계급의 위치에 관한 입장들을 검토하고 있다.

2105. 車鐘千, "지역주의적 선거와 유권자 :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지지에 대한 로짓 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서울호, 한국사회학회, 1989. 5, pp.143-160.

Cha Jong-Chun, "Regionalistic Election and the Voters: A Logit Analysis of Voter's Choice among the Candidates of the 1987 Presidential Elec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2 No. 2,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9. 5, pp.143-160.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후보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지후보, 거주지, 교육, 연령에 따라 나눈 4 차원교차표에 대한 로짓 및 다분법적 로짓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노태우후보지지에 촛점을 맞춘 로짓분석 결과는 지역, 연령, 교육 모두가 노후보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은 다른 두 변수와 상호작용을 일으킴이 없이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과 연령은 뚜렷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특히 대학학력자 가운데 중년이상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노후보지지를 둘러싸고 현저한 태도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분법적 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노태우후보지지와

김영삼후보지지를 대조시킬 경우 국민학교 학력, 중년이상 세대, 그리고 전라도 거주가 노후보지지에 유리한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06. 洪東植, "농업의 상업화와 농촌 사회변동"(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사회학 제22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1988. 10, pp.91-108.

Hong Dong-Sik, "Agricultural Commercialization and Rural Social Change : With Emphasis on Village Solidar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2 No. 1,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8. 10, pp.91-108.

농업의 상업화가 농촌사회의 변동, 특히 부락의 공동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종래의 관련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농업의 상업화가 부락의 공동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화론적 가설, 강화론적 가설, 변형론적 가설을 설정한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경남의 전형적인 6개 농촌부락에서 총 307명의 영농가구주 및 부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설 검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부락의 생태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총 5개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는 대체로 변형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농업의 상업화는 부락 민들의 현실적인 유대의식을 보다 강화시키거나 부락의 전통적인 협동방식을 약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상업화의 영향은 미백 중심의 상품화율 증가 추세보다 시장경제 여건에 민감한 전문적 상업작목의 확대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9. 복지

2107. 權五得, "농어촌 의료보험의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복지 제34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12, pp.48-67.

Kwon Oh-Deuk, "A Financial Analysis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n Rural Areas"(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4 No. 4,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 12, pp.48-67.

의료보험은 보험급여 자체가 목표이며, 재원은 그 자원으로서 자원의 이동 즉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이 전국민 보험적용 목표달성과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 된다. 자영자보험의 경우 향

후에도 계속 재정손실이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과 그 손실의 보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색되어야 할 대안은, 정부와 민간의 재정부담에 있어 민간부담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민간부담에 있어 농어촌주민(도시 영세민의 경우도 같다)의 경우 그 부담능력이 부족하므로 다른 민간부문의 재원을 이전시켜야 하는 등 그 이전의 방법으로서는 재정공동 부담사업, 재정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등이 있다.

2108. 金聖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국문), 사회복지 제34권 제2호,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1988. 6, pp.7-28.

Kim Soung-Yee, “Work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Should be Improved”(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4 No. 2,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 6, pp.7-28.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시설 종사자들의 미흡한 기본적 노동 조건이 시설종사자들에게 조기 퇴직 현상, 전문가 배양 비율의 저조화 현상, 유자격자의 분포가 지극히 적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체계면, 노동 시간면, 노동 환경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2109. 金聖二, “한국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행위”(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8. 12, pp.54-66.

Kim Soung-Yee, “Drug Abuse and Delinquency among Korean Youngster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11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 12, pp.54-66.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약물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약물이 청소년들의 비행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세째,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소년 비행 행위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다.

2110. 金秀暎, “한국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구”(국문),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0집 제1권, 경성대학교, 1989. 3, pp.293-322.

Kim Soo-Young, “A Study on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in Korea”(in Korean), *University Jurnal* Vol. 10 No. 1, Kyungsung University, Pusan, Korea, 1989. 3, pp.293-322.

노인의 제 문제들 중 특히 경제적 측면에 초점 을 두고, 아무런 소득보장 제도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노인들을 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노인 소득보장의 타당성을 경제적, 정치적, 심리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특히 한국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구사회적 특징,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의 변화, 소득 보장제도의 적용상태, 빈곤의 현황의 순서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공적 부조 등 노인소득보장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2111. 金秀春, “의료보험진료비 審査支拂制度 개선방향의 모색”(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2, pp.129-151.

Kim Su-Chun, “A Review on the Payment System of Medical Insuranc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8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12, pp.129-151.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진료비 審査支拂制度는 일반적으로 단가제로 불리는 行爲別・價制度인데, 이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종류와 각 진료행위의 단가가 미리 결정되며, 의사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와 가격도 약가기준에 의해서 제약받는 제도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진료비 審査支拂制度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지불방식의 특성을 검토한 다음 몇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112. 金貞愛, “사회복지 재원의 동향 및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복지 제34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6, pp.165-195.

Kim Jung-Ae, “A Study on the Trends of Social Welfare Funding and the Methods of Stabilizing Funding Sources”(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4 No. 2,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 6, pp.165-195.

지난 20여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할당된 정부예산을 분석, 사회복지재원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민간재원동원의 제방법과 동원된 재원의 활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양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동원된 재원이 어떠한 상태에

- 이르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6공화국에서 는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 으로 사회복지재원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조명해보고 있다.
2113. 김환준,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교분석을 통 해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위상”(국문), 사회복지 제 35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9. 3, pp.4-23. Kim Hwan-Joon,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mong N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5 No. 1,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9. 3, pp.4-23.
- 일반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상으로 한 국제간의 비교연구 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이며 복지를 국정주요지표의 하나로 표방한 1980 년 이후의 변화추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부문을 매우 등한시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의 원인으 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규모가 국민총생 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둘째 우리나라의 방위 비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고, 세째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많이 편중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에의 비중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114. 박陵厚, “국민연금제도의 급여구조 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한국인 구보건연구원, 1988. 7, pp.103-129. Park Neung-Hoo, “An Analysis of Benefit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8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7, pp.103-129.
- 기본연금액의 분석을 토대로 보수등급별 개인의 연금수급액을概算하고 동시에 현행의 국민연금제 도에 함축된 급여구조상의 공평성 및 평등성 여부 를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평성과 평등성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함수관계로 도출하 는 논리적 구성을 시도하며,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 도가 추구해야 할 最適의 급여방식을 결정하는 하 나의 준거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115. 박순국, “정신박약자녀의 장래보장을 위한 부 모의 욕구조사”(국문), 사회복지 제35권 제1호, 한 국사회복지협의회, 1989. 3, pp.24-45. Park Soon-Kook, “A Study on Parents needs for the Future Security of Their Mentally Retarded Children”(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5 No. 1,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9. 3, pp.24-45.
- 정신박약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자녀의 장래보장 욕구를 조사하고 타 장애자 부모 와 비교하여 정신박약자 부모의 욕구를 의료, 직업, 시설보호, 장래보장의 네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있다. 장애특성이 부모들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장애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장애자의 성이 남자 일 때,母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의 교육정 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취업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 적으로 보고 있고, 시설수용보호와 장래보장욕구에 대해서는 그 요구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정신박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제언하고 있다.
2116. 白鍾萬,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재원 : 지방자치 시대와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조달을 중심으로”(국문), 경성대학교논문집 제10집 제1권, 경성대학교, 1989. 3, pp.273-292. Pack Jong-Man, “Local Government and Social Welfare Planning”(in Korean), *University Journal* Vol. 10 No. 1, Kyungsung University, Pusan, Korea, 1989. 3, pp.273-292.
-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변화될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 기능의 바람직한 배분형태와 패연적 으로 대두하게 될 재원조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여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적인 과제를 모색한다. 먼저 “지방자치의 실시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이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가를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간의 참여를 패연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바, 이에 따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에의 참여의 방법과 영역을 살펴본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더욱 그 기능과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조달상의 문제점을 살핀다. 이를 위해서 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을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 해서 살펴본 후, ② 현행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재 무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 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의 재원조달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가능성

을 전망해 보고 있다.

2117. 성규택, 朴英蘭,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복지 제34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12, pp.16-47.

Sung Kyu-Taik & Park Young-Ran, “Study of Social Helping Networks of the Elderly”(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4 No. 4,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 12, pp.16-47.

서울 시내 재가노인들의 사회적 지원, 이들의 안녕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과의 관계를 지원망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 사회적 지원이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서 검증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노인의 지원망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가족’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친척, 친구 및 이웃으로 구성된 지원망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원망이 지원을 구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만족할만한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고,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원망의 구조와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 지원망의 친밀성이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점 또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표본이 서울에 거주하는 표현적이고 비교적 건강한 재가노인들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심스럽게 일반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외국의 이론적 틀을 참고로 하되 한국의 상황적 요인을 기초로 한 한국적 지원체계론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2118. 宋建鏞, 朴蓮雨, “의료보험의 의료이용양상과 의료균점에 준 효과분석”(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7, pp.73-102.

Song Kun-Yong & Park Yeon-Woo, “Effect of Health Insurance Programs on Utilization Patterns of and the Equality in Access to Medical Care in Rural Area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8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8. 7, pp.73-102.

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대하며, 이에 따라 의료정책의 주요 관심은 의료의 균점에 있게 된다. 이같은 보건정책의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① 혁신적 방법이 의료이용수준에 준 효과 ② 의료

보험의 의료이용양상의 변화에 준 효과 ③ 의료보험의 의료의 균점실현에 준 효과 ④ 의료보험의 종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주요 정책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한다.

2119. 송근원, “복지정책 연구를 위한 제언”(영문 및 영문요약),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0집 제1권, 경성대학교, 1989. 3, pp.207-217.

Song Keun-Won, “Suggestions for Welfare Policy Study : Research Questions and Usable Policy Research”(in English with English Summary), *University Journal* Vol. 10 No. 1, Kyungsung University, Pusan, Korea, 1989. 3, pp.207-217.

This paper presents a set of basic research questions for welfare policy analysts to produce more usable information for policy making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idiosyncrasies of welfare policy is first Scanned to assess past welfare policy research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welfare policy research. Secondly, the reasons are discussed why most policy studies in the welfare field are unusable, based on the model of information usage process in policy making. 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usable welfare policy research are defined. Finally, the research questions are suggested for future policy analysi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2120. 慎燮重, “한·일 노인복지정책의 비교연구 : 재가노인복지를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7권 제1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8. 6, pp.93-128.

Shin Seop-Joong, “A Comparative Study on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in Korea and Japan : Mainly on Welfare for the Aged at Hom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7 No. 1, College of Social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pp.93-128.

한·일 양국의 재가노인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의 제영역에 대하여 정치, 경제 및 문화적 변수와 아울러 그 시차성을 감안하여 유사성과 상이성을 상호비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실제로 삼아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위해 한·일 양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의 사회경제적 배경, 노

인복지의 정의와 원칙, 노령인구의 현황과 노인문제의 실태, 노인문제의 심리적 차원의 연구 등을 검토한다.

2121. 延河清, “사회보장제도의 자원배분 및 소득재분배효과”(국문 및 국문요약),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89. 5, pp.51-71.

Yeon Ha-Cheong, “Social Security : Equality and Resource Allocation in Korea”(in Korean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Vol. 11 No. 1,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9. 5, pp.51-71.

사회보장제도확충과 관련된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효과를 국제비교와 경험적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의 균형의 제고 및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 정책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균형의 추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성장의 효율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2122. 崔孝喆, 裴茂基, “노동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국문), 대전대학 논문집 제7권 제1호, 대전대학, 1988. 8, pp.241-270.

Choi Hyo-Chul & Bai Moo-Ki, “A Study on the Labor Welfare Indicators”(in Korean), *Theses of Daejon College* Vol. 7 No. 1, Daejon College, Daejon, Korea, 1988. 8, pp.241-270.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근로자계층이 인지하는 복지, 즉

근로복지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지표 즉 근로복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일관성있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정립과 정책평가는 물론 사용자나 근로자(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인을 고용사정,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사생활 등 제1차적인 주요관심사항 4개와 그 각각에 대응하는 세부관심사항 3-4개씩으로 확장하여 모두 57개의 개별지표로 구성해내고 있다.

2123. 成喆鎬, “한국사회보험의 차별적 적용확대와 불평등”(국문), 사회복지 제34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12, pp.102-127.

Ham Cheol-Ho, “Differential Enlargement of Adoption of Social Insurance and Inequility in Korea”(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4 No. 4,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 12, pp.102-127.

한국의 사회보험의 어떤 계층 혹은 집단에 가장 많은 이득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서구 복지 국가에서처럼 중산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아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빈민층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아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하위계층들로부터 연금적용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적용계층과 미적용계층간에 불평등을 조장하며 현재의 불평등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과정은 적용 기준의 부합여부에 따라 그 대상자를 포함, 제외시키는 차별적 적용의 확대 과정이었고, 일반적 으로 포함된 자는 중산층이었으며 제외된 자는 하층민이었다. 이에 따라 심화 확대되는 빈부격차를 심각히 인지하면서 기회의 평등이 선행한 이후에 보험의 기여, 급여방식에서 오는 불평등 문제를 연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